

# 북핵 겹쳐 '조문 정국' 안갯속으로

## 갈피 못잡는 정치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이어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정국이 매우 혼란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하는 등 하루 종일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진 민감성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 열기 속에 숨죽이고 있는 '조문(弔問) 정국'에 어떤 파급을 줄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 "하필 喪 중에..." 北 핵실험 강력 규탄

靑 이대통령 주재 긴급 NSC 소집 대책 논의

◇한나라당=이날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노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던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북한 핵실험 소식을 접하고 급거 귀경했다. 당 미래위가 대우특위(위원장 공성진)도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화학·생물학 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도발 행위"라면서 "북한이 나쁘고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서울역 등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조문객을 맞

고 있던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송영길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뿐 아니라 외교교통통일위 간사인 문화진 의원 등 관련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도 참석,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이고 핵문제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가진 분"이라며 "상중에 북한이 핵 실험한 것은 잘못이고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장기간에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인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 있던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송영길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뿐 아니라 외교교통통일위 간사인 문화진 의원 등 관련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도 참석,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이고 핵문제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가진 분"이라며 "상중에 북한이 핵 실험한 것은 잘못이고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장기간에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인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연차 수사' 종료후 사퇴 가능성

## 임채진 검찰총장 거취는

서거 소식 듣고 고민 끝 '사직서'

법무부 "사태 수습이 먼저" 반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임채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돼 임 총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비록 반려되기는 했지만 임 총장은 언제든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잡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료 전에 교체될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사직서 제출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일부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수사를 총지휘했던 임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된다면 검찰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임 총장이 인간적인 고뇌 때문에 23일 출근 즉시 사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사표를 되돌려 보내왔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실제로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임명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가 끝나면 검찰총수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그의 사직서가 실제 수리될 것인지, 수리된다면 언제 처리될 것인지 등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를 지휘한 임 총장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거취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임 총장이 사퇴하면 후임 총장 인선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 데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물론 수사팀까지 대폭 물갈이되면서 사실상 전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수사도 후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지만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후임 총장이 맡으면 어떤 결론을 내든 정치적인 편파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총장 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더한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수



임채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를 너무 오래 끌었고 임 총장이 제때 신병처리를 결정하지 못해 노 전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에 신속성보다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한 것도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와 시기는 그의 개인적 결심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여론 동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커지면 청와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임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카드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뽑아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임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 경호 논란 속 봉하마을 전격 방문 할 수도

## 李대통령, 조문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봉하마을 분향소 조문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직접 조문을 결정하긴 했으나 현지의 격양된 분위기로 인해 돌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중반인 오는 27일이나 28일께 조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은 아직 현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26일에는 국무회의와 국무위원 재경전략회의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측을 깨고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봉하마을 분향

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문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경호 문 등 고려,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분향소 조문 대신에 영결식 참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장례위원회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방문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지 분위기가 격양되어 있다는 점에서 봉하마을 분향소 조문이 어려워 질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방문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장의위원회 1천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

## 장의위 구성·절차

정부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장장(國民葬) 장의위원회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이른 시간에 장의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장의 집행계획을 수립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의위원회

는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 위원, 집행위원, 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통상 고문은 3부 요인과 정당대표, 친지, 기타 저명인사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감사원장 등이 맡는다.

위원은 3부의 장관급 이상과 국가유공자단체, 사회·종교·경제·교육·금융·언론 등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

성된다.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는 외교교통상부(외전), 기획재정부(재정), 문화체육관광부(홍보), 경찰청장(경호) 등이 참여한다.

2006년 10월 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장 당시 장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고문 55명, 국회부의장과 선인 대법관, 감사원장 부총리 등 부위원장 8명, 위

원 616명 등 총 680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에서는 장의위원장뿐 아니라 고문과 부위원장, 위원 등도 정부 측이 선정한 인사 외에 참여정부 당시 인사 등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원 구성에 차이가 나고 총 인원수도 1천명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 전 대통령 유족 측과 장의위원회 구성을 협의 중이다. 노 전 대통령측 참여 인원에 따라 1천명이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합격율 신외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 無等과 만나세요!! =

# 7.9級 공무원 소직렬

30.40 주부반모집합치 해교세관감법점마철교보보간복소기 5만소 소방인력 8395명 총인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3.19금, 4.1일 / 7.9.7월 시행
- 3.19금, 4.1일 / 7.9.7월 시행
- 시험시간: 7.9급 국가직 2-4시간, 지방직 4-5시간
- 채용인원: 7.9급 국가직 2-4천명, 지방직 4-5천명
- = 대한민국 공시합격의 선구자 無等!! =

개강 6월 1일 (주·야 별관반모집)

부대시설

- 강학실 20여개 - 구내식당
- 인사초빙반 - 지방유치원
- 맞춤식 학원을 제공
- 매일 무료인강 및 모의고사 실시

www.mdgosi.co.kr

광주동부서무 222-4560

# 목장용지급매

- 위 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목장용지: 6,390㎡(1,933평)
- 대 지: 476㎡(144평)
- 총 계: 3,734평
- 건 평: 2,350㎡(약700평)건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 등
- 매 도 가: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락처 ☎010-3617-8810

# 경찰 메가경찰학원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재형, 오경수 합격

6개월과정

- 27월 원성 3회 반복학습
- 영어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25%/D/C 교재 15%/D/C

1년과정

- 27월 원성 6회 반복학습
- 영어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D/C 교재 15%/D/C

합격비율 1위 교수진

영어 이말피

- 경험 영어 70% 합격자
- 꼭꼭 짚어 듣기 강의
- 강의장 15년

경찰학 오만

- 신경찰경찰학전문직강
- 남부경찰학전문직강
- 광주대기경찰학전문직강

수사 차주은

- 강의장 22년
- 광주 순천 미인 전문
- 광주대기경찰학전문직강

합격률 김현중

- 사서 (치) 3회 합격
- 신원동 광명경찰수강생 10년 경력
- 합격률 90% 합격이 확보되고 있다.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 44년전통공인증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사

주제관리사 9월 20일 시험

6월 1일 (첫전도 시역반)

국비지원 선착순

직장인을 위한 수강료 환급과정

www.gmega.co.kr

227-8003

971-0002

전남여고 맞은편 3층

광주은행 침단점 4층